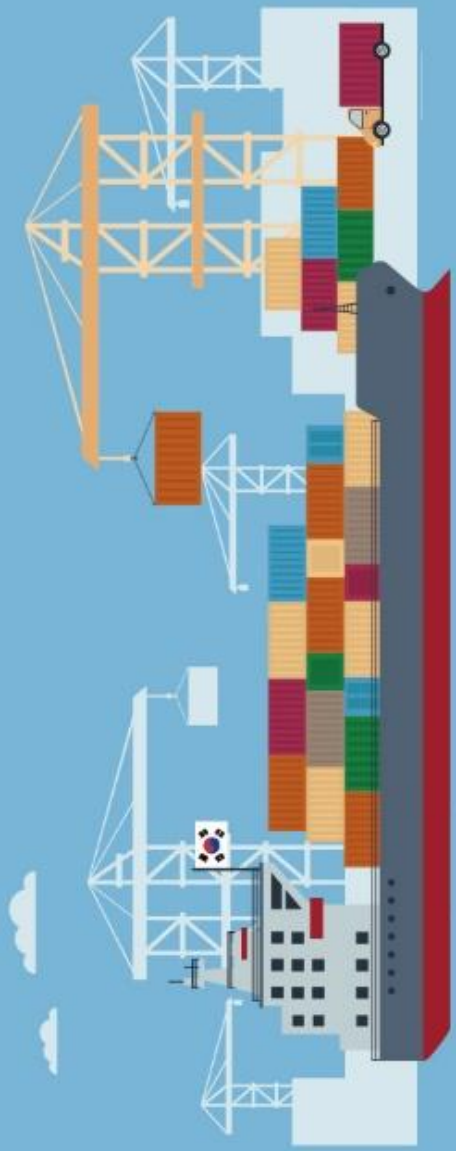
투자전략 | 김대준 daejun.kim@koreainvestment.com
박기훈 khpark@koreainvestment.com

투자전략

수출보국(輸出報國)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Contents

I. 수출 60년 대한민국 3

1. 한국 수출의 역사
2. 수출 시장의 확대
3. 2024년 수출 전망

II. 라이벌 중국 등장 12

1. 중국 수출의 역사
2. 중국의 경쟁력 강화

III. 한중 수출 경쟁 격화 16

1. 수출 경합 및 무역 특화
2. 대미 수출 경쟁
3. 대일 수출 경쟁

IV. 한국 수출주 투자전략 23

1. 전세계: 선별적 수출주 비중 확대
2. 중국: 일부 품목 기회 포착

투자전략

수출보국(輸出報國)

투자전략: 수출보국(輸出報國)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은 단연 수출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1964년 1억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1년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수출대국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 기업들도 성장했다. 반도체를 다루는 삼성과 SK는 지난 10년 동안 시가총액이 2배 이상 커졌고, 가전, 자동차, 철강, 선박을 만드는 그룹들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사세가 대폭 확장됐다.

한국의 수출 성장이 큰 변동없이 지속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이는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 새로운 라이벌 중국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1년 WTO 가입을 기점으로 수출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2009년 전세계 수출 1위를 달성한 이래로 주요 시장에서 한국과 수출 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품목도 한국과 유사한 하이테크 산업으로 변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한중 양국은 수출과 관련해 더 이상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다. 극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라이벌 관계다. 다행인 건 최근 전세계 시장에서 양국의 수출 경합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 규제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미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점도 수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변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미국에서 잘 팔리는 품목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한국 시장에서 투자 수익률 제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수출이다. 지수나 종목 모두 수출 모멘텀이 주가 상승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수출 실적에 올해 수출 전망, 정부 정책 지원, 해외 수출 경쟁 등을 고려해 종목과 비중을 결정해야 한다. 여러 산업 중에서 반도체와 선박 업종이 가장 유망하다. 자동차와 바이오헬스 업종에서도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I. 수출 60년 대한민국

1. 한국 수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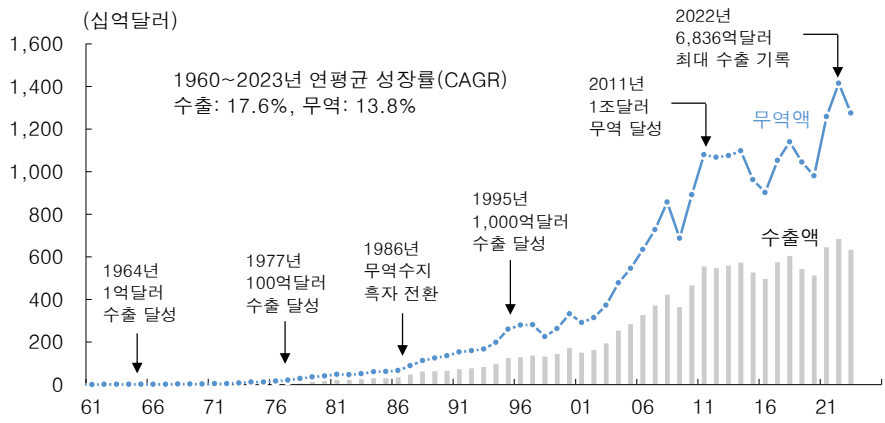
한국 경제는 수출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세 기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다양한 국가들은 각자의 요인들로 인해 흥망성쇠를 겪어왔다. 그중 한국은 경제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가 이를 방증한다.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수출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은 1964년 1억달러 수출을 시작으로 2011년 무역 규모 1조달러를 달성한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

한국 경제의 규모는 수출기업 확장에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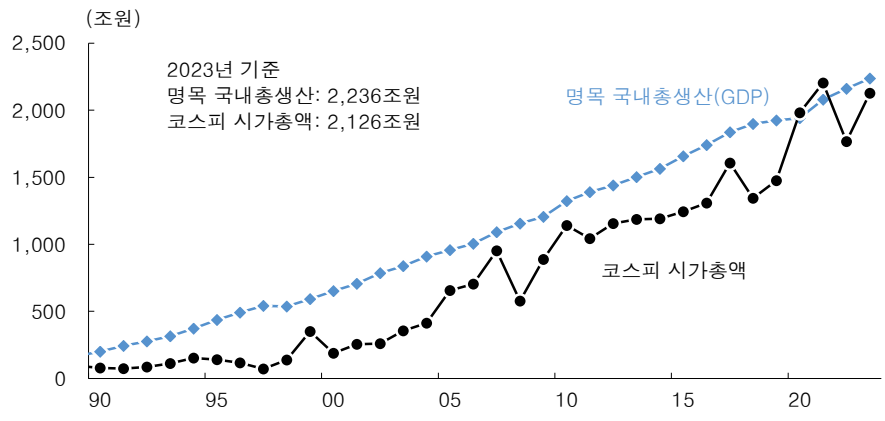
내수가 열악했던 탓에 모든 관심은 수출로 집중됐다. 기업들은 해외에서 돈을 벌어 규모를 키워왔다. 그 결과 수출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코스피는 2023년 말 기준 시가총액이 2,126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수출기업들의 확장세에 비례하여 한국의 경제 규모도 급격하게 확장됐다.

[그림 1] 한국 수출 성장 역사: 2011년 무역 1조달러 달성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2] 명목 GDP와 코스피 시가총액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2010년대 수출은 연평균 4.1% 성장

수출 실적을 10년 단위로 끊어보면 급격한 성장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22억달러에 그쳤던 수출은 10년 단위로 617억달러, 3,497억달러로 빠르게 증가했다. 다만 규모가 커진 만큼 연평균 성장률은 서서히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수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4.1%로 성장률 이상의 수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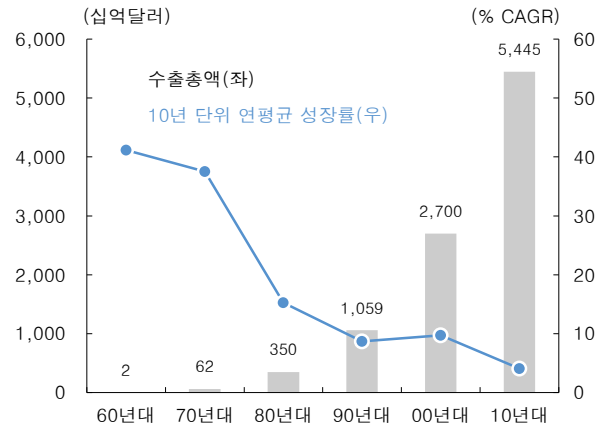
한국 수출 품목은 반도체 등 하이테크로 변화

주요 수출품은 60년대 가발, 의류 등에서 70~80년대 선박, 철강 등 중화학제품, 90년대 이후부터는 반도체, 전기차 등 하이테크제품으로 변화했다. 반도체는 총수출에서 매년 1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품목으로 부상했다.

한국은 수출과 무역 면에서 전세계 8위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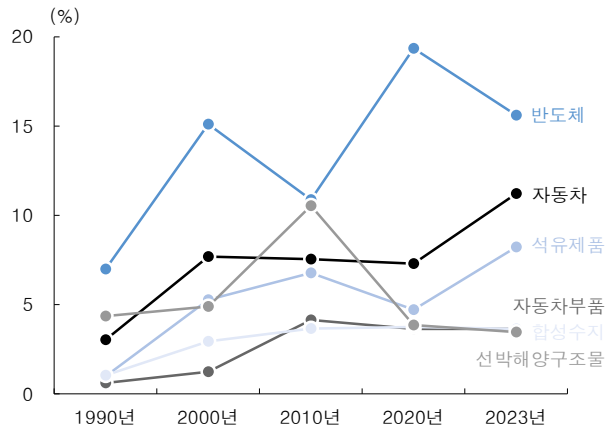
한국의 수출 집중 전략으로 국가별 수출 순위는 꾸준히 개선됐다. 총수출과 무역 규모는 2023년 기준 세계 8위다. 수출 규모는 전세계 수출의 2.7%를 담당하고 있다. 수출 10위권 내 국가는 아시아에서 중국, 일본, 한국, 홍콩에 불과하다.

[그림 3] 10년 단위 수출총액과 연평균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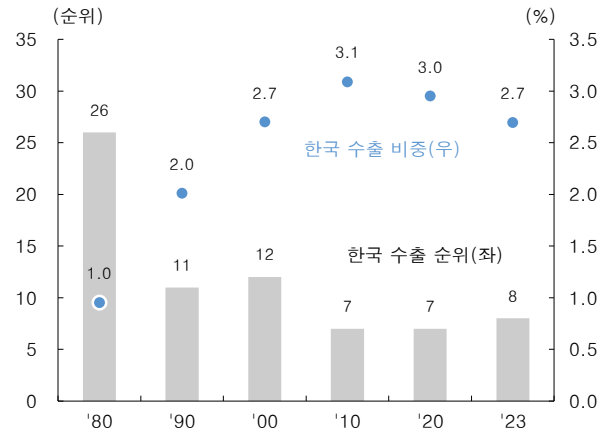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주요 수출 품목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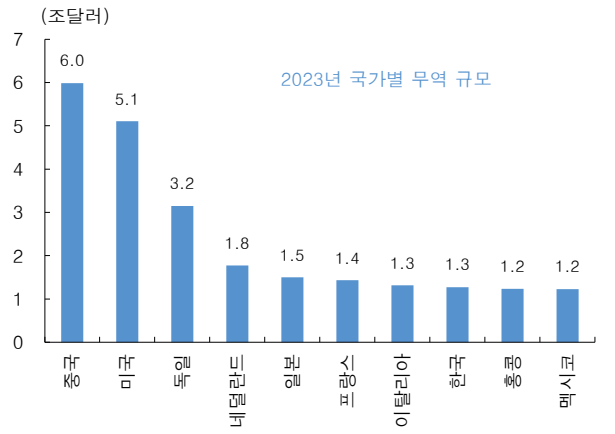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한국 수출 순위와 비중 변화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국가별 무역 규모: 한국 8위 달성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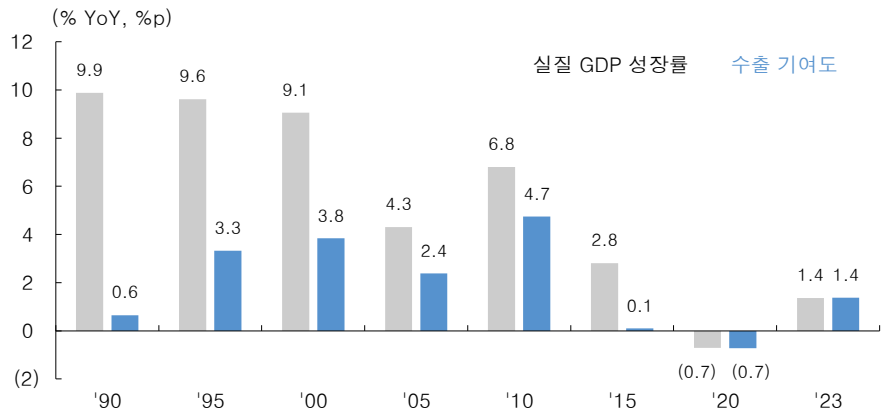
한국의 버블 붕괴 이후 수출이 핵심 성장 동력

각 시대의 경제성장률 변화를 보면 수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는 한국 경제의 최대 호황기였다. 실질 성장률이 9%를 상회할 정도로 고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당시엔 소비와 투자가 급증해 수출보다 성장 기여도가 컸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 이후에는 결국 성장과 관련해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확인됐다. 지난해 실질 경제성장률이 1.4%로 발표된 상황에서 수출은 모든 항목 중 기여도가 가장 높은 1.4%p로 확인됐다.

국내 수출 성장과 함께 대기업도 규모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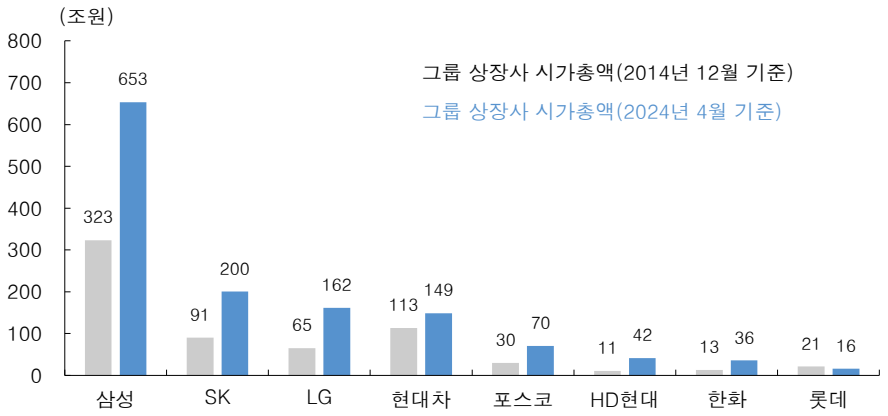
전술했듯이 수출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는 과정에서 수출기업들도 동반 성장했다. 2023년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 삼성, SK, LG, 현대차 등을 기업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중 반도체를 다루는 삼성과 SK는 최근 10년 동안 2배 성장했다. 가전, 자동차, 철강, 선박을 다루는 그룹도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기업이 커진 것은 동일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 기업 규모도 자연히 확장된다.

[그림 7] 한국 실질 GDP 성장률과 수출 기여도



자료: Datastream, 한국투자증권

[그림 8] 한국 10대 그룹의 시가총액 변화: 수출기업 대폭 성장



주: 4월 26일 기준
자료: Quantiwise, 한국투자증권

2. 수출 시장의 확대

수출 주도형 경제는 보호무역주의에 노출

2010년대 후반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전세계 무역시장에서 변화가 발생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주의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된 것이다.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글로벌 공급망도 일부 훼손됐다. 그 결과 보호무역주의와 관련된 보이지 않는 벽이 더욱 두꺼워졌다. 수출 주도형 경제를 구축한 국가들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됐다.

무역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FTA를 적극 확대할 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결국 무역 관련 애로사항을 제거해야 한다.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무역 상대국 간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 지형을 확장하기 위해 FTA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했다.

한국은 59개국과 총 21건 FTA 체결

2024년 4월 기준 한국은 미국, 중국을 포함한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FTA 협상을 진행하려는 국가도 전세계 전역에 다수 존재한다. FTA가 발효되면 상품무역과 관련해 협정 당사국 간 내국민 대우, 시장 접근 원칙 등에 다양한 혜택이 발생한다. 서비스와 투자를 비롯하여 원산지 규정, 절차, 통관까지 모든 분야에서 기존보다 개선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2월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 발표

역대 한국 정부도 수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28일 '2024년 범부처 수출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2023년 수출 실적은 6,322억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는데, 2024년에는 역대 1위로 수출 규모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지금처럼 매크로 불확실성이 팽배한 가운데 경제 현상에 맞춰 수출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부처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주력 품목과 목표 시장을 선정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력 품목과 목표 시장을 선정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은 미국, 중국에 아세안이 더해졌고,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등 공급망 관련 제품을 비롯해 탄소중립, 디지털, 인구구조, 수주산업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수출 관련 인프라 구축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AI 반도체에 집중함과 동시에 수출기지로써 평택공장 증설과 용인특화단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차전지는 2027년까지 포항에 양극재와 음극재 등 배터리 핵심소재 공장을 구축할 것이다. 전기차는 울산, 화성에 2025년까지 전용공장을 만들고, 광명공장에선 일부 공정을 전환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수주산업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

한편 탄소중립과 관련해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품목으로 친환경선박, 저탄소철강, 항공유, 바이오플라스틱을 제시했다.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수주산업은 (원전)기자재, (방산)자주포, (그린)해수담수화 설비를 타국과 논의해서 수출한다는 방침이다.

<표 1> FTA 발효 국가 리스트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타결	서명	비준	발효	
칠레	1999.12	2002.10	2003.02	2004.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4.11	2005.08	2005.12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1)	2005.01	2005.07	2005.12	2006.06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2)	2005.02	2006.04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4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06	2007.11 (서비스무역협정)	2009.05	2009.05 (서비스무역협정)	
		2007.11	2009.06 (투자협정)	–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8.09	2009.08	2009.11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3)	2007.05	2009.07	2010.10.06.	2011.05	2011.07.01(잠정) 2015.12.13(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5개월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0.08	2011.03.21.	2011.06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4	2007.06	2011.11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0.12	2018.09.24. (개정협상)	2018.12	2019.01.01. (개정의정서)	
튀르키예	2010.04	2012.03	2012.08.01. (기본협정 · 상품무역협정)	2012.11	2013.05.01. (기본협정 · 상품무역협정)	유럽 · 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4.07	2015.02.26. (서비스 · 투자 협정)	2015.11	2018.08.01. (서비스 · 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3.12	2014.04.08.	2014.12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3	2014.09.22.	2014.1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4.11	2015.06.01.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22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4.11	2015.03.23.	2015.11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4.12	2015.05.05.	2015.11	2015.12.20.	우리의 제4위 투자대상국(22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2.06	2013.02.21.	2014.04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4)	2015.06	2016.11	2018.02.21.	2019.08	2021.03.01. 전체 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6	2019.08.22.	2019.10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5)	2012.11	2019.11	2020.11.15	2021.12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이스라엘	2016.05	2019.08	2021.05.12.	2022.09	2022.12.01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2021.02	2021.05.12	2022.09	2022.12.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인도네시아	2012.03	2019.10	2020.12.18	2021.06	2023.01.01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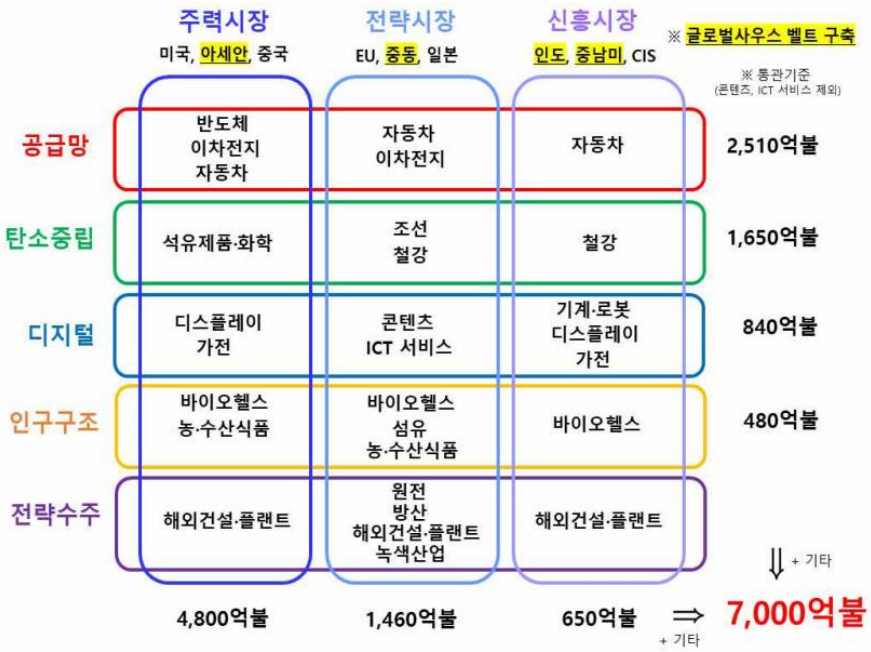
주: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15개국):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모로코EPA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표 2> FTA 타결 및 협상 국가 리스트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 타결	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20.0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10.26. 협상타결 선언 2023.9.7. 정식 서명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UAE	2023.9 제1차 공식협상 2023.10 제2차 공식협상 2023.10.14 협상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에콰도르	2015.08 협상개시 선언 2016.01~2016.11 5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2.03 협상재개 선언 2022.07~2023.04 6차~9차 협상 개최 2023.10.11. 타결 선언 및 가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 협의개시 2021.11~2023.04. 4차례 수석대표 회의 개최 2023.9.5. 타결 선언 2024.1.9. 정식 서명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GCC6)	2007.01~2010. 3차례 협상 개최 2021.01 협상재개 합의 2022.03~2023.10 4차~8차 협상 개최 2023.12.28. 타결 선언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협상 진행	몽골EPA	2023.9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3.12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아시아 내 대표 자원부국
	조지아EPA	2023.9 협상개시 전 국내절차 완료 2024.02 제1차 공식협상 개최	코카서스 지역 유망국
	우즈베키스탄	2021.01 협상개시선언 2021.04~2021.11 2차례 공식협상 개최	중앙아 최대시장
	MERCOSUR7)	2018.05 협상개시 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10~2023.11 수석대표 회의 개최	남미 최대 시장
	러시아 서비스 · 투자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 · 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유라시아 진출 교두보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3.07~2023.11 2차례 수석대표회의 개최 2024.03 협상 재개 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중국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9차례 서비스 · 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인도 CEPA 개선	2016.10~2024.01 10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 양허 · 원산지기준 개선
	칠레 개선	2018.11~2024.04 9차례 개선협상 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ASEAN 개선	2010.10~2022.07 19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 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영국 개선	2022.02 한-영 FTA 무역위 계기 개선협상 개시 추진 합의 2022.10 공청회 개최 2023.11~2024.03 2차례 개선협상 개최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여건 조성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이집트	2022.01 공동연구 MoU 서명	북아프리카 주요 교역국
	PA8)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2022.01 협상개시 선언	중남미 신흥 시장
	케냐EPA	2024.03 국회보고	
	탄자니아EPA	2024.03 국회보고	
	모로코EPA	2024.03 국회보고	
	태국EPA	2024.03 협상개시 선언	

주: 6)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7)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8) PA(태평양동맹)(4개국):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9] 2024년 수출 주력 품목 및 목표 시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표 3> 20대 주력품목별 핵심 추진 과제

트렌드	주력품목(20개)	新수출동력(30개)	추진 과제
공급망 재편	반도체	HBM, AI 반도체	평택 공장 증설('24년), 용인 특화단지 지원방안 마련
	이차전지	양극재	배터리 핵심소재(양극재 · 음극재) 생산기지(포항, ~'27년), 파우치형 배터리 대규모 양산시설(서산, ~'25년)
	자동차	전기차	전기차 전용공장 신설(울산 · 화성, ~'25년) · 전환(광명, ~'24년)
탄소중립	조선	친환경선박	초일류 스마트조선소(울산 · 영암, ~'26년), 차세대 친환경 · 스마트선박 생산설비(거제, ~'26년)
	철강	저탄소철강	친환경차용 전기강판 공장 증설(광양, ~'24년)
	석유제품	항공유	SAF 생산시설 확충(소량: ~'24년, 대량: ~'26년~)
	석유화학	바이오플라스틱	샤힌 프로젝트(울산, ~'26년), ARC 프로젝트(울산, ~'26년)
디지털 전환	디스플레이	투명 OLED	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제조시설(아산, ~'26년)
	가전	IoT/AI 가전	스마트팩토리 구축(창원, ~'25년)
	ICT 서비스	SW, 정보보호	시큐리티 팀 코리아 구성, 민관합동 수출개척단 파견
	콘텐츠	게임, 영화 · 음악, 웹툰	수출특화펀드 1,500억원 규모 조성
	일반기계	굴삭기, 히트펌프	생산시설 현대화(울산, ~'25년), 설비투자(인천 · 군산, ~'25년)
인구구조	바이오헬스	바이오시밀러, 초음파영상진단기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농식품	라면, 딸기	신선농식품 특화 물류 인프라 구축
	수산식품	김, 굴, 참치	권역별 협력 물류업체 네트워크 조성
	섬유	탄소섬유, 아라미드	고부가 소재 생산시설 확충
전략수주	원전	원전 기자재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등 수주 도전
	방산	자주포	방산선진국과 전략적 공조 강화
	녹색산업	해수담수화 설비	전략수립-판로-애로해소까지 원스톱 수출지원 체계 강화
	해외건설 · 플랜트	스마트시티	PIS 1단계 집행(0.5조원) 및 2단계 조성(1.1조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3. 2024년 수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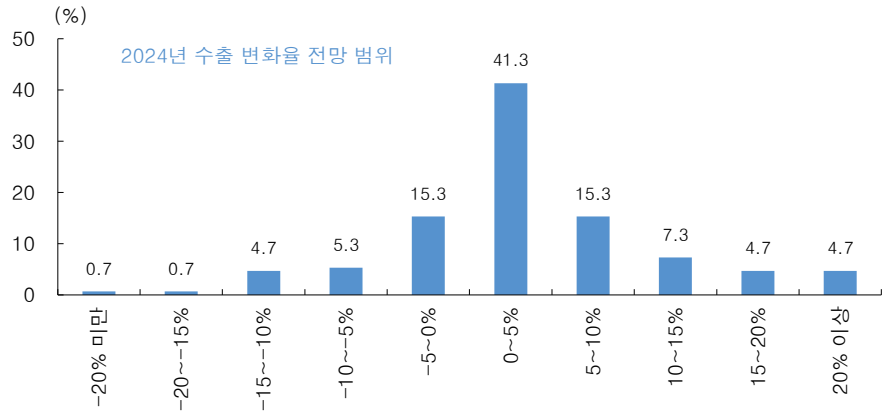
올해 수출 전망과 관련해 성장 응답 비율은 73.3%

올해 3월까지 수출 실적을 보면 연간 수출 전망도 양호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1월 12일부터 11일간 수출 주력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수출 전망을 설문 조사했다. 결과를 보면 설문에 응한 수출사 41.3%가 2024년 수출이 2023년보다 0~5%가량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수출 성장을 예상하는 비율은 73.3%로 그렇지 않다는 비율 26.7%를 크게 상회했다. 2024년 수출에 대해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수출이 증가하기 위해선 수출대상국 회복세가 중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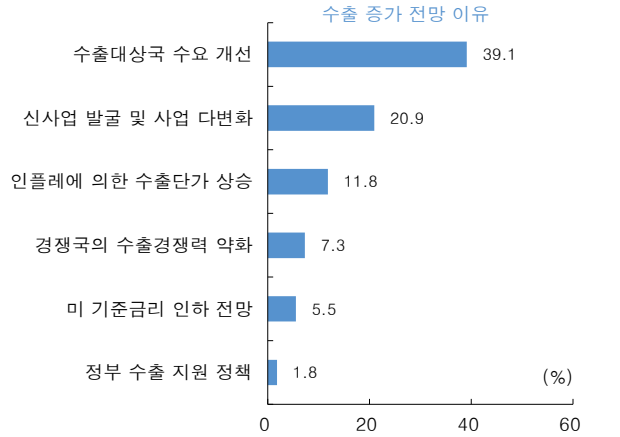
수출기업들은 올해 수출 성장과 관련해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의 수요가 회복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다행히 미국은 경기가 회복세에 있고 중국도 내수 경기 살리기에 나서면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반면 수출 감소와 관련해 원가 상승 및 수출 경쟁력 약화를 거론했다. 중동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과 수출 경쟁국의 부상은 한국 수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림 10] 2024년 수출 변화율 전망: 전년대비 소폭 개선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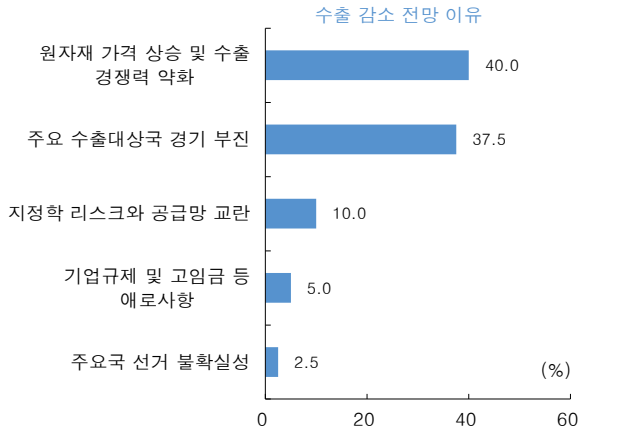
주: 조사기간 1/12~1/22,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150개사 응답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1] 수출 증가 전망 이유: 수요 회복이 긍정적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2] 수출 감소 전망 이유: 원가 부담이 부정적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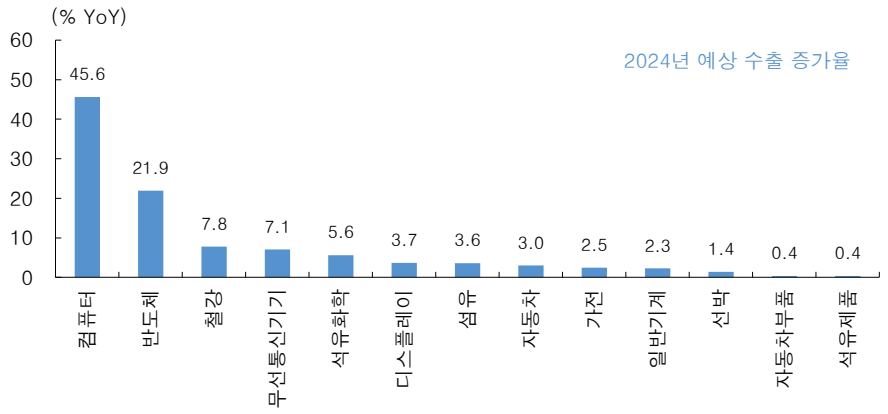
올해 수출이 양호할 품목은 컴퓨터, 반도체 등 IT로 확인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수출 성과가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단연 IT다. 컴퓨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이 양호한 수출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철강, 석유화학 등 시클리컬 산업의 수출 증가도 예상됐다. 하지만 해당 산업은 중국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에 좀 더 관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수출 채산성 개선 측면에서 IT와 선박에 관심을 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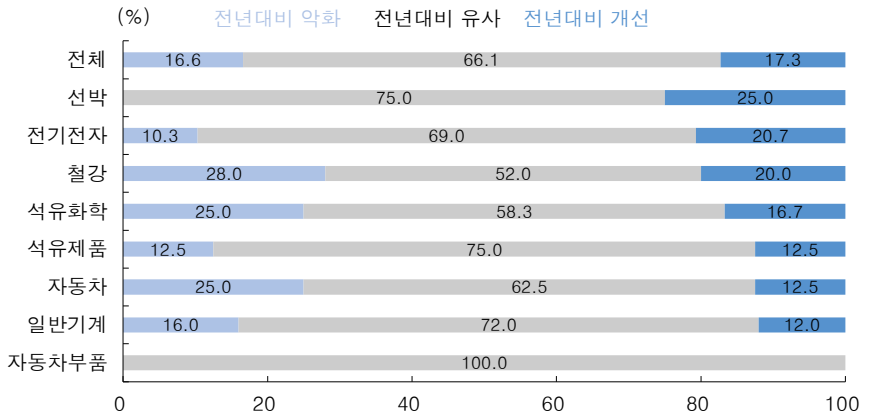
한편 실제 수출과 관련해 여타 환경을 고려해도 기업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은 선박과 IT가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수출 채산성이 전년보다 개선될 확률이 나빠질 확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현 정부의 수출확대 전략에서 보듯이 반도체를 비롯한 IT와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에 역량을 집중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결국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 집중해야 하는데 IT와 선박이 해당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림 13] 주요 품목의 2024년 수출 성과 전망: IT 호조 예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4] 2024년 업종별 수출 채산성 전망: 선박과 IT 긍정적



주: 조사기간 1/12~1/22, 매출액 상위 1000개 기업 중 150개사 응답
자료: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국투자증권

II. 라이벌 중국 등장

1. 중국 수출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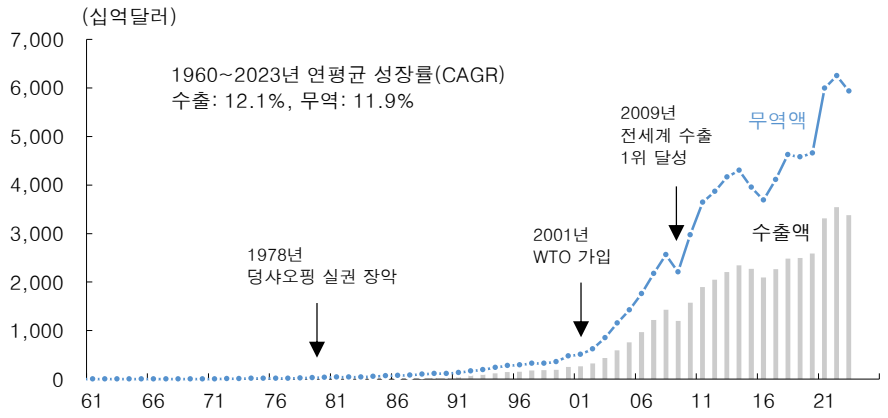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수출이 급속도로 성장

중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부상에 매번 어려운 도전을 안겨줬던 국가다. 수출은 더욱 그렇다. 어느덧 중국은 한국보다 높은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부상했다. 중국의 정치 변화가 계기였다. 1978년 덩샤오핑이 정치 권력을 장악한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을 외치면서 빠른 속도로 변화했다. 2001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고 2009년에는 전세계 수출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중국 성장과 함께 수출도 동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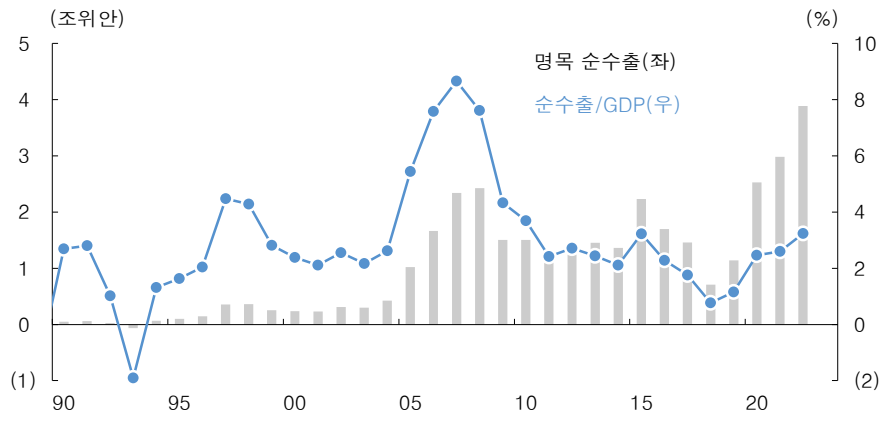
중국도 한국과 같은 과정을 밟아왔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를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줄은 외부에 있다. 이에 중국은 저임금과 풍부한 노동력을 토대로 스스로 전세계 공장이 됐다. 시간이 갈수록 경공업 위주였던 산업이 중화학공업으로 변모했다.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그림 15] 중국 수출 성장 역사: WTO 가입 후 급증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16] 중국 순수출 규모와 GDP 대비 순수출 비중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중국의 과거 수출품은 단순 조립제품에 국한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이 전세계 수출시장에 새로운 획을 그었다. 2001년까지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 상위 5개를 보면 단순 조립 제품과 상품이 많았다. 수출 상위 1~2위 품목은 HS Code 기준 8471과 8473으로 표시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부품이다. 쉽게 말하면 노트북과 데스크탑이다. 그 다음으로는 TV, 라디오, 의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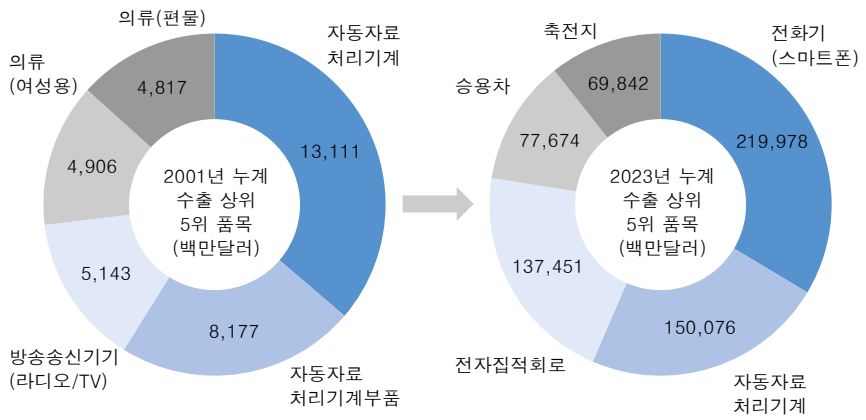
현재 중국의 수출품은 하이테크 산업에 집중

그러나 20년이 지난 지금은 수출 품목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은 한국과 경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필두로 전자집적회로(반도체), 자동차, 축전지(2차전지)등을 전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극심한 경쟁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대중 의존도는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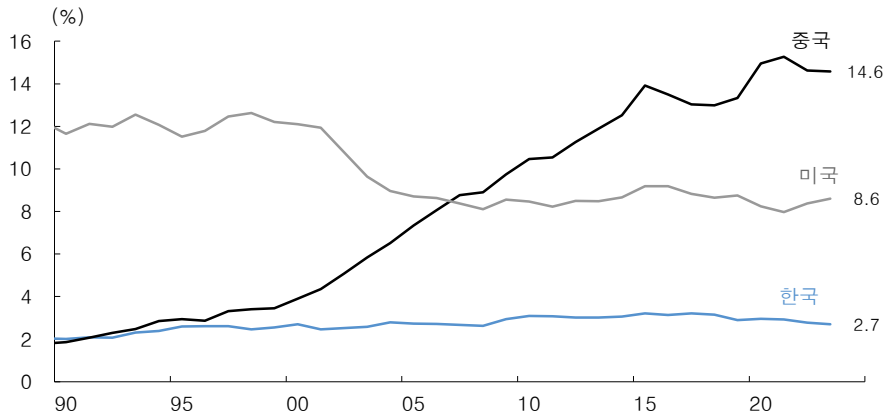
한편 중국이 전세계 수출시장에 진입한 이후, 대중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전세계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져 현재는 거의 15%에 다다른다. 한국 수출 비중이 2.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중국의 수출 파워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림 17] 중국 주요 수출 품목 변화: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18] 국가별 수출 비중: 중국은 수출대국으로 부상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2. 중국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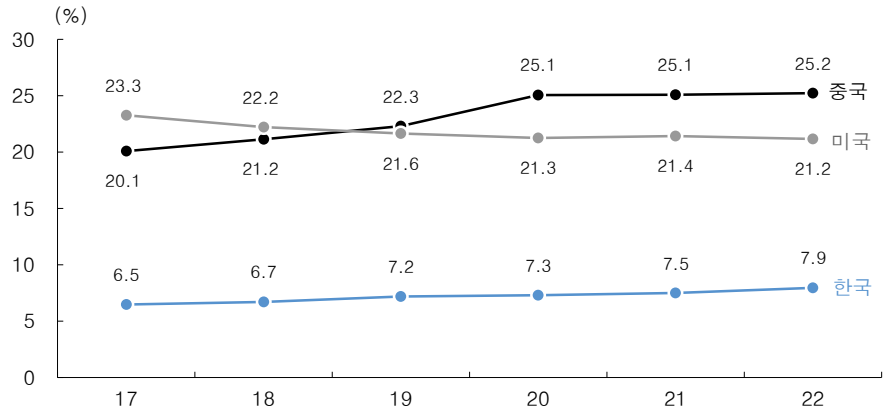
중국 수출 급증 배경에는 산업 기술력 강화가 존재

중국 수출 급증의 배경에는 산업의 기술력 강화가 있다. 높아진 기술력만큼 수출 경쟁력이 강해진 것이다.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가 다수의 통신 관련 특허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은 특허 출원 1위 국가경쟁력 순위 2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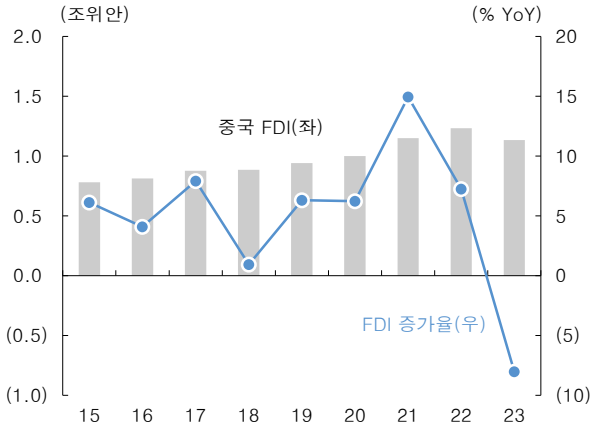
중국의 경쟁력은 특허 출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특허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 수단이다. 특허의 양과 질을 통해 일부 국가나 기업의 기술 경쟁력 지속 여부를 알 수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PCT 국제특허 출원에서 총 69,995건을 확보한 바 있다. 미국의 58,716건보다 1만건 이상 많다. 한국은 22,024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특허 출원 비중은 전체의 1/4에 달한다. 그동안 중국으로 대규모 외자가 유입된 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중국은 종합순위 21위로 한국보다 7단계 높다. 경쟁력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수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림 19] 국가별 세계 국제특허 출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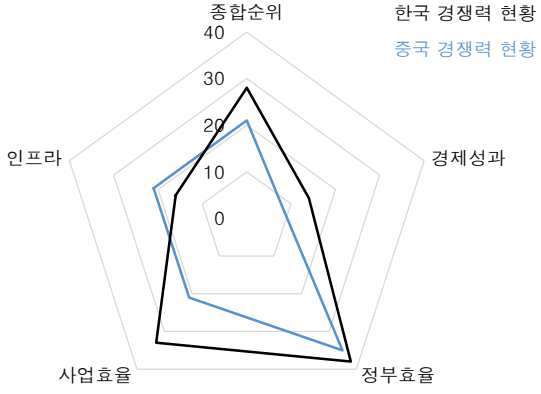
주: 2023년 6월 전망
자료: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한국투자증권

[그림 20] 중국 연도별 FDI와 증가율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21] 2023년 한중 양국의 국가경쟁력 비교



주: 각 항목별 순위는 낮을수록 경쟁력 높음
자료: IMD, 한국투자증권

중국제조 2025 계획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

또한 중국은 2045년까지 제조업 대국에서 강국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리커창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가 대표적이다. 중국은 해당 계획에서 제조업의 혁신능력을 제고하고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을 육성하기로 천명한 바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정부가 산업을 주도하는 계획경제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점은 우리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환경이 아닐 수 없다.

<표 4> 중국제조 2025 10대 핵심산업

대분류	소분류	주요 내용
차세대 정보기술	집적회로 및 전용 설비	반도체 설계 수준을 향상.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핵심 설계설비 확대. 국가정보 및 인터넷 보안 유지, 전자제품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칩 국산화 사용 확대. 고밀도 패키징 및 3D 마이크로 패키징 기술을 개발하여 패키징 산업 발전과 테스트 역량 강화를 도모. 핵심 제조설비를 안정적으로 공급
	차세대 정보통신	신형 PC, 초고속 인터넷, 첨단메모리, 체계적인 보안시스템 등의 핵심 기술을 개선하여 5세대 모바일통신기술, 첨단 라우팅기술, 초고속 대용량 스마트 광전송기술 등을 발전. 첨단서버, 대용량 메모리, 신형 라우팅, 신형 스마트 단말기, 차세대 기지국, 인터넷보안 장비 등을 개발
	운영체제(OS) 및 공업용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OS 등 산업용 S/W를 개발. 스마트 디자인 및 시뮬레이션 설비, 사물인터넷, 산업용 빅데이터처리 등 첨단 산업용 S/W기술을 발전. 첨단산업 S/W 플랫폼과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산업용 S/W 통합표준과 보안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
고급 수치제어/공작기계 및 로봇	고급 NC 공작기계	고정밀, 고속, 고효율 수치제어, 기초 생산설비 및 통합생산시스템을 개발. 고정밀 수치제어,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등 첨단기술 및 설비 R&D 강화. 고정밀 수치제어 시스템, 서보모터, 베어링, 래스터 등 주요 기능성 부품과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상용화. 사용자 프로세스 인증 역량을 강화
	로봇(산업용, 서비스용)	자동차 · 기계 · 전자 · 위험물 제조 · 국방 · 화학공업 · 경공업 등의 산업용 로봇과 헬스케어 · 가사 · 교육 · 엔터테인먼트 등의 특수용 로봇의 신제품 개발을 확대. 로봇의 표준화 및 모듈화 발전을 추진. 로봇의 응용범위 확대. 로봇 본체, 감속기, 서브모터, 제어기, 센서, 구동기 등 핵심 부품 및 시스템 통합설계 제조 등을 발전
항공우주설비	항공설비	대형 항공기 및 기체확장형 기종을 연구 · 생산. 중형 헬리콥터 생산을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 간선 및 지선 항공기, 헬리콥터, 무인기 등의 상용화를 도모. 고추진력중량비, 첨단터보 프롭 엔진, 고바이패스비 터보팬 기술을 개발. 항공기 탑재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 자체 생산이 가능한 항공산업 사슬을 구축
	우주설비	차세대 탑재로켓, 중형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등 우주비행산업 경쟁력을 제고. 인공위성, 페이로드, 초고속 인터넷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격탐사위성, 통신, 네비게이션등 항공정보역량을 강화. 유인 우주비행 및 달 탐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심우주 탐사를 실시. 우주비행기술의 상용화 및 우주기술 응용을 확대
해양 엔지니어 설비 및 첨단 선박	해양 엔지니어 설비 기술	심해탐사, 자원 개발 · 이용, 해양 안전장비 및 시스템 발전을 추진. 해저정거장, 대형 부유식 구조물을 구축. 해양플랜트설비 테스트, 모니터링, 검증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자원의 개발 · 이용 수준을 제고. 크루즈선 설계 · 건조 기술 수준 향상. LNG선박 등 최첨단 선박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보조 장비 통합, 지능화, 모듈화 관련 기술을 확보
	첨단 선박기술(크루즈, 액화 천연가스 선박 등)	
선진 궤도교통 설비	신소재, 신기술, 신가공 응용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을 응용. 보안시스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 디지털 및 스마트네트워크 기술을 발전. 친환경, 스마트, 고속 대용량 궤도교통설비 시스템을 구축. 궤도교통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
	안전관리 및 에너지 절약	
	제품의 경량화, 모듈화 등	
에너지절감 및 신에너지 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저탄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발전. 자동차의 저탄소 · 정보화 · 스마트화기술을 보유. 동력전지, 모터드라이브,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경량소재, 스마트제어 등 핵심 기술 상용화를 추진. 핵심 부품 등을 포함한 완성차 생산시스템을 완비. 중국산 에너지절약 및 신에너지 자동차 수준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
	관련 핵심 기술 (고효율 내연기관, 첨단 변속기 등)	
전력 설비	고효율 석탄전력 정화설비, 수력 및 원자력 발전 등	대규모 고효율 · 청정 화력발전의 상용화 및 시범응용을 추진. 대용량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중형 가스터빈 제조 수준을 제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첨단 에너지저장장치(ESS), 스마트그리드 송전 · 변전 등을 발전. 고성능 전력전자부품, 고온 초전도소재 등 핵심 소자 및 부품의 응용기술을 향상시키고 상용화를 추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농업 기계 설비	첨단 농기구 및 핵심 부품	곡물 · 목화 · 기름 · 설탕 등의 식량, 경제작물의 파종 · 재배 · 수확 · 운반 · 저장 등 주요 생산과정에서 쓰이는 농업기계장비를 발전. 대형 트랙터, 복합 작업기, 대형 수확기 등 첨단농업기계장비 및 핵심 부품의 발전을 추진. 농업기계장비에 대한 정보 수집, 의사결정, 정밀작업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
신소재	특수금속,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재료 등 신소재	특수금속 기능성소재, 고성능 구조재료, 기능성 고분자소재, 특수무기질 비금속재료, 첨단복합소재를 중점적으로 발전. 최첨단 정련 · 응고 · 성형기술, 기상증착, 소재가공, 고효율 합성 등 신소재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를 개발. 기초연구 기반 강화 및 상용화 확대. 군 · 민용 특수신소재를 개발, 상호 기술이전을 촉진하여 신소재산업의 군 · 민 융합발전을 추진. 초전도소재, 나노소재, 그래핀, 바이오 기초소재 등 전략적 최첨단소재를 개발하여 기초소재 경쟁력을 강화
바이오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고성능 의료기기 및 첨단 의료기술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한 화학의약품, 중의약품, 바이오의약품을 개발. 의료기기 혁신성및 상용화 수준을 제고. 영상장비 · 의료용 로봇 등 고성능 진료장비 및 혈관 내 완전분해스텐트 등 고부가가치 의료용 소모품을 개발. 웨어러블, 원격 진료 등 모바일 의료서비스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 바이오 3D 프린터 등 첨단기술을 개발 및 응용 확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III. 한중 수출 경쟁 격화

1. 수출 경합 및 무역 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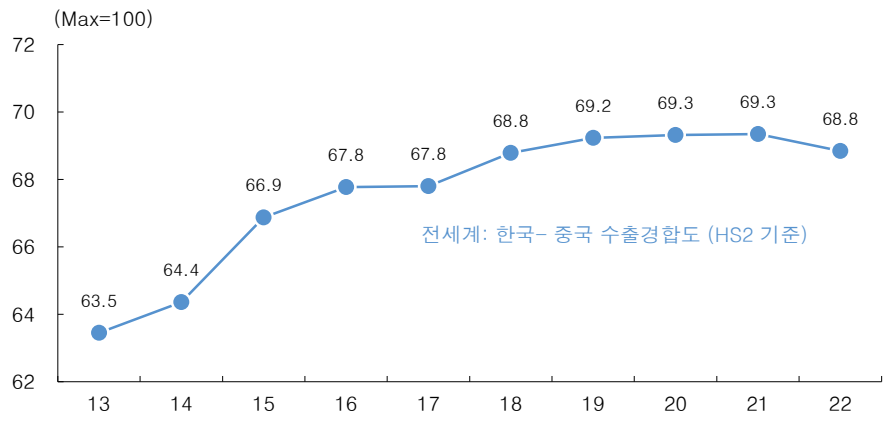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은 수출에서 경쟁하는 관계로 변화

한중 양국은 수출 측면에서 더 이상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서 극심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라이벌이 됐다. 수출 경쟁강도는 경합도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UN Comtrade 데이터 중 HS2 코드를 토대로 경합도를 구해보면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수출 경쟁이 격화됐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수출 특화 품목이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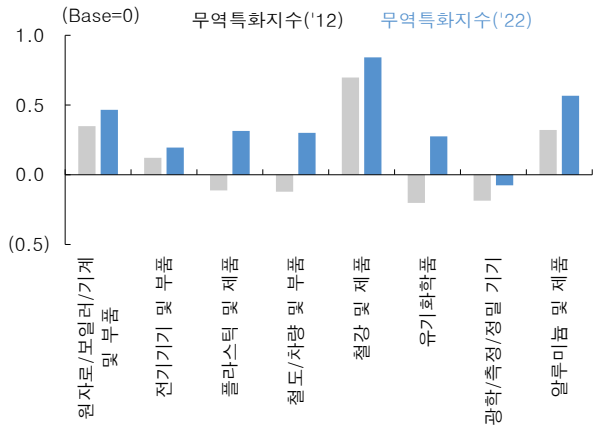
무역특화지수를 보면 중국은 10년 전보다 광학기기를 제외한 주요 품목에서 전부 수출 특화로 변화했다. 반면 한국은 플라스틱과 철강 외에는 수출 특화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쟁 강도가 심화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그림 22]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전세계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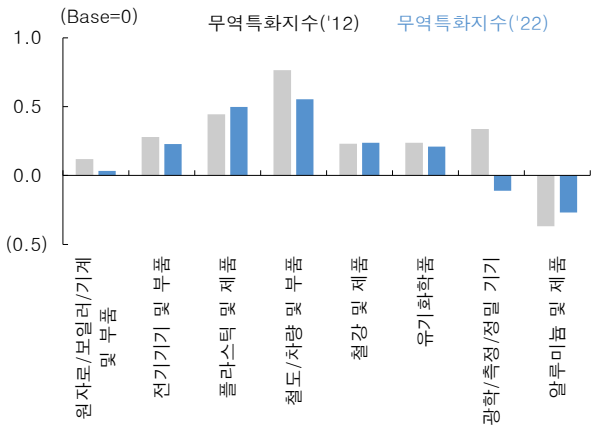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3] 중국 무역특화지수: 한중 경쟁 품목 대상



주: 무역특화지수 (+)는 수출 특화, (−)는 수입 특화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4] 한국 무역특화지수: 한중 경쟁 품목 대상



주: 무역특화지수 (+)는 수출 특화, (−)는 수입 특화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2. 대미 수출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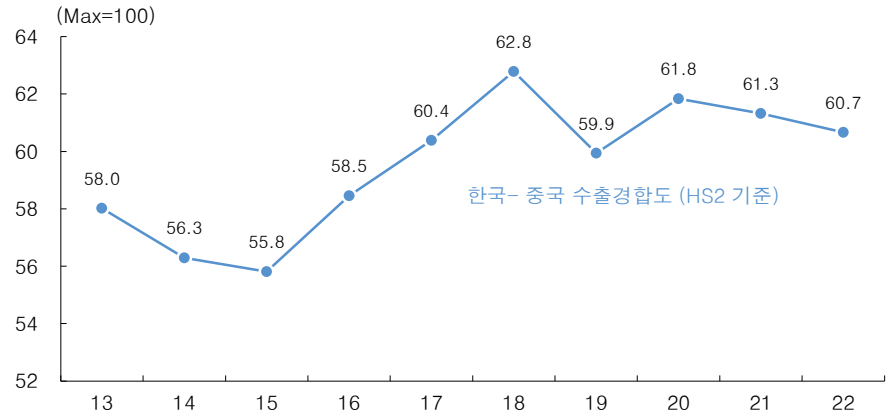
미국 내 한중 수출 경쟁은 미국의 대중 규제로 약화

한국에게 중국을 제외하면 주요 수출시장은 미국이다.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중국과의 수출 경합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7년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 전략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중국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중 수출 경쟁은 다소 약화되고 있다.

양국의 경쟁 품목은 IT 관련 제품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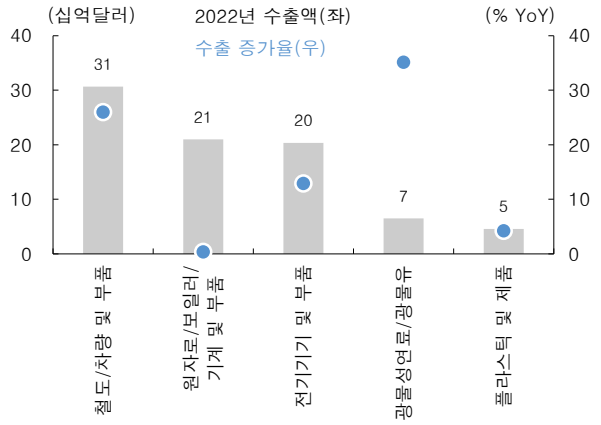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한국은 자동차, 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주로 보내고, 중국은 한국과 같은 제품에다 완구류와 침구류를 수출하는 걸로 확인된다. HS Code 84 항목인 원자로/보일러/기계 및 부품은 PC를 비롯해 다양한 IT제품이 포함되는데 한국이 중국보다 수출 증가율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25]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미국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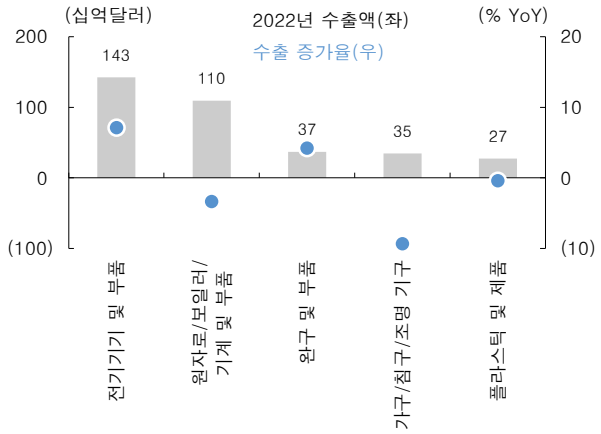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6]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7] 중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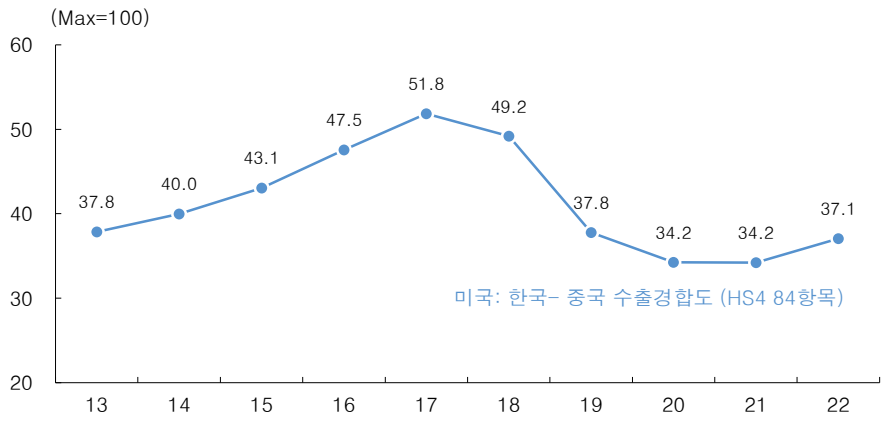
HS Code 84 항목은 한중 경쟁이 심화

HS Code 84 항목을 4단위로 더 세분화하면 해당 산업의 경합 관계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전체 수출 경합도와 달리 원자로/보일러/기계 부품 항목은 약하지만 경쟁 강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수출 경합도 지수가 30%대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가전은 산업기계와 달리 경쟁 압력에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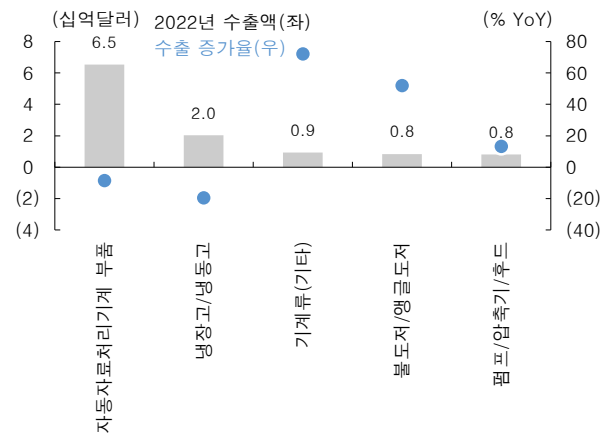
품목별로 보면 한국은 IT 제품의 수출 규모가 크다. 2022년 기준이므로 코로나19 영향력이 잔존해 수출 증가율은 한국과 중국 모두 부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계류는 한국의 수출 성장세가 눈에 띈다. 한편 규모가 중국보다 작은 자동자료처리기계(노트북, 데스크탑) 부품 등은 수출 성적이 저조하다. 냉장고, 냉동고 등 IT 가전도 마찬가지다. 해당 품목은 중국과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림 28]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미국 내 원자로/보일러/기계부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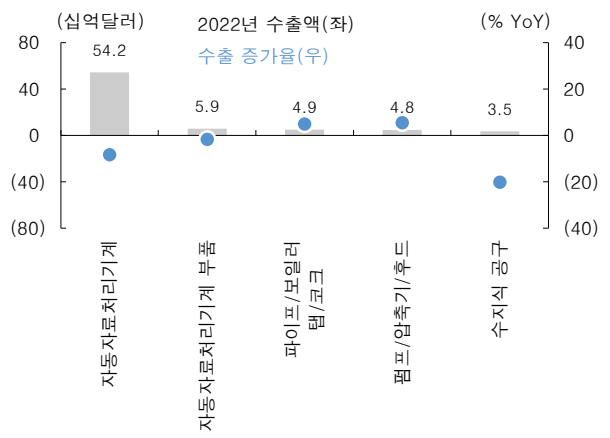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9]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0] 중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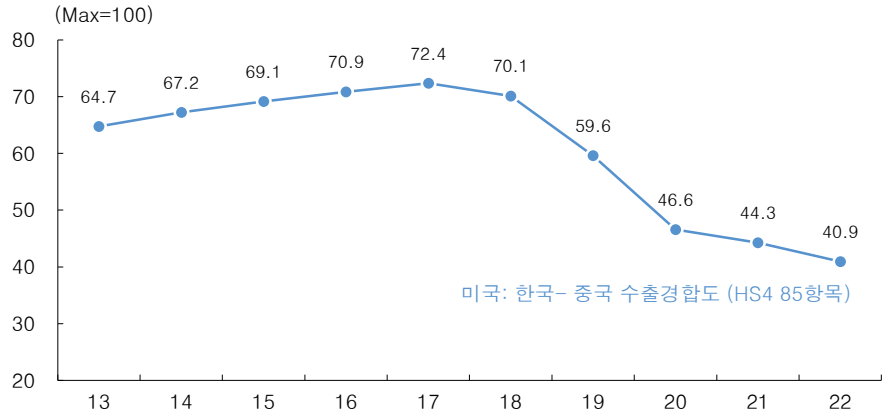
HS Code 85 항목은 한중 경쟁이 약화

HS Code 85 항목은 전자기기 및 부품으로 4단위로 나눠 보면 한중 양국의 경쟁 강도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해당 품목의 수출 경합도 지수는 40.9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진 수치다. 결론부터 내린다면 한국은 해당 품목에서 대미 수출을 빠르게 늘릴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기술 제재로 반도체 수출 경쟁력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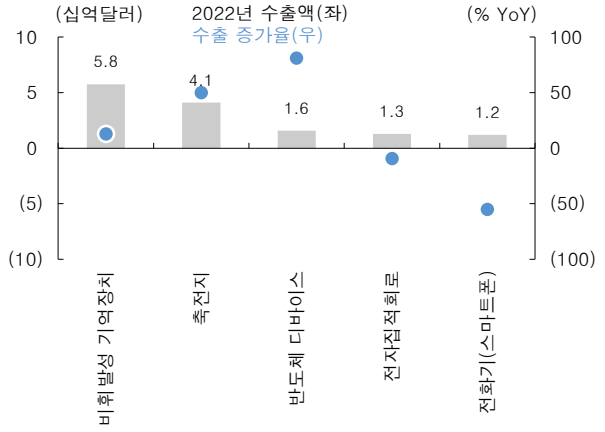
한국은 관련 품목에서 주로 비휘발성 기억장치, 축전지, 반도체 디바이스, 전자집적회로, 스마트폰을 주로 수출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스마트폰 등 한국 수출 성장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품목들이다. 반면 중국은 스마트폰과 축전지가 수출 상위로 확인된다. 메모리 반도체 항목이 없는 이유는 미국의 기술 제재와 관련해 가장 밀접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당분간 중국의 산업 성장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투자에 힘써야 한다.

[그림 31]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미국 내 전자기기 및 부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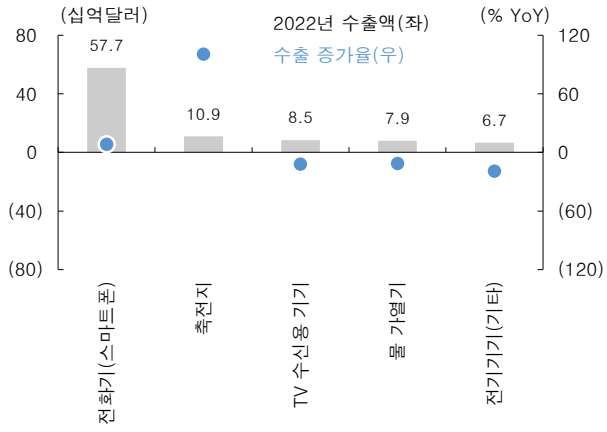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2] 한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3] 중국의 대미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3. 대일 수출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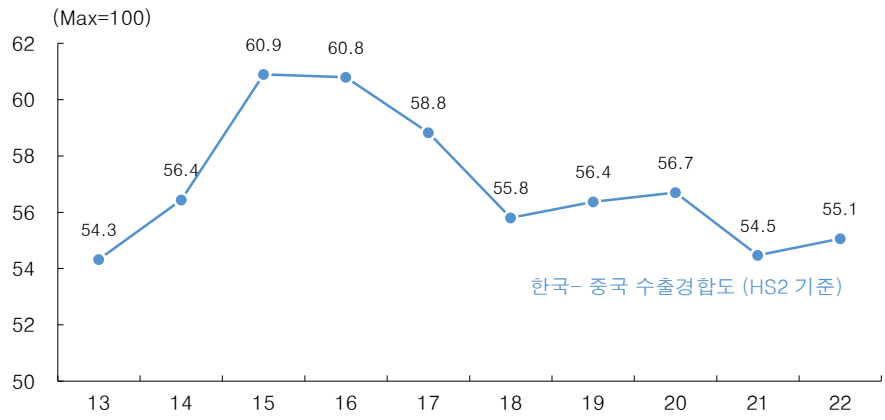
한중은 일본 시장에서 미국만큼 경쟁하지 않음

한국과 중국은 미국보다 시장은 작지만 같은 권역인 일본 시장에서도 수출 경쟁을 지속할 수 있다. 일본을 한정으로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를 살펴보면 미국 시장에서 확인된 만큼의 경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5년 60.9까지 올라갔던 경합도 지수는 2022년 55.1로 다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의 기술 경쟁력 우위로 IT 외 제품을 주로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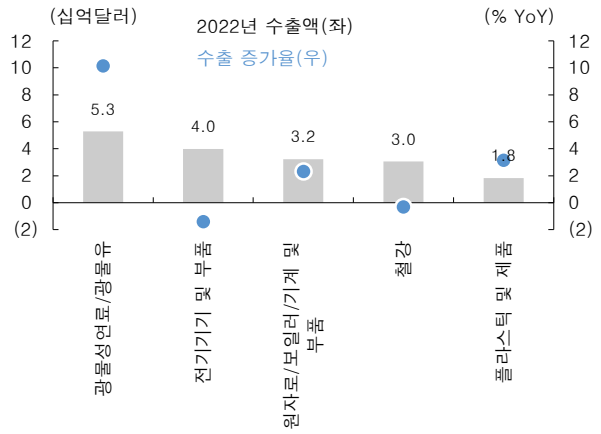
한국과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도 미국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한중 양국은 IT와 관련된 중간재나 최종재를 수출하는 입장이다. 다만 일본도 해당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경쟁력도 양국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수출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보다 IT 외 품목인 정유, 철강, 플라스틱, 의류 등을 한국과 중국이 수출하고 있다.

[그림 34]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일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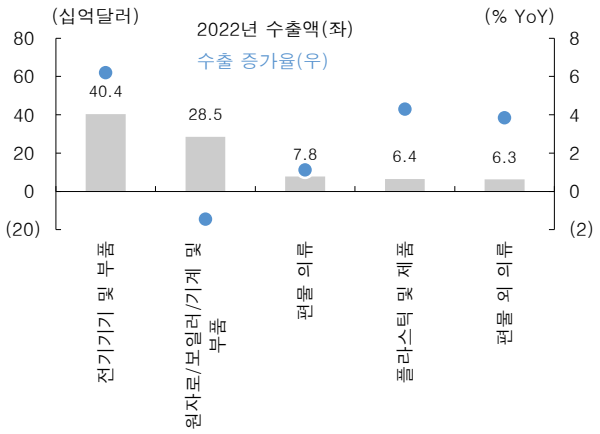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5]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6] 중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주: HS 2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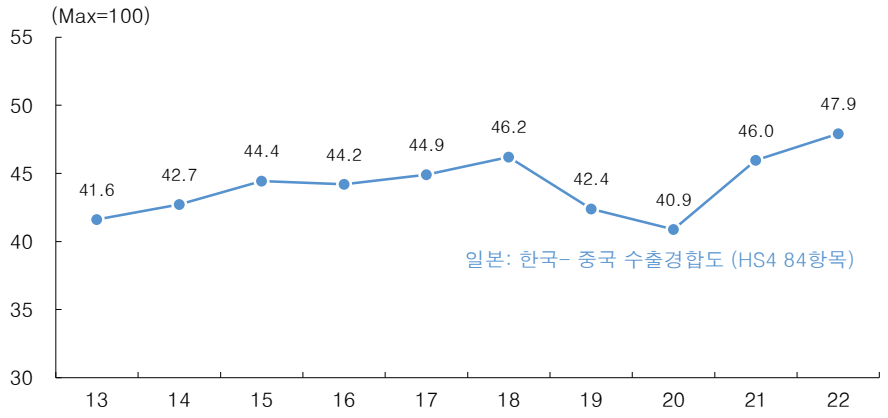
HS Code 84 항목의 대일 수출 경쟁은 제한

HS Code 84 항목인 원자로/보일러/기계부품 만을 분류하여 4단위 기준으로 수출경합도를 산출하면 한국과 중국 제품이 일본에서 서로 경쟁하며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극단적 경쟁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수출 경합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수치는 47.9로 상승세가 제한적이다.

한국과 중국의 대일본 수출 상위 품목은 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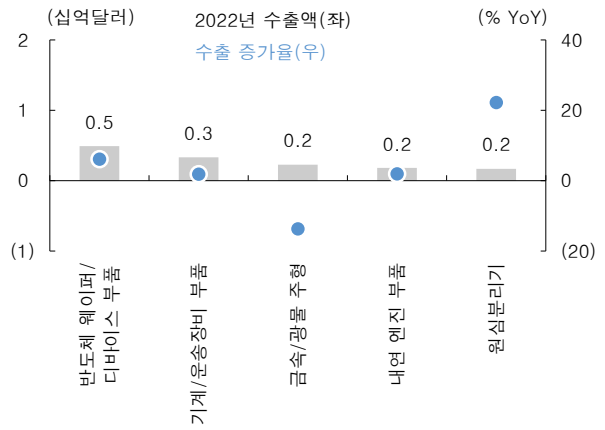
수출 상위 품목은 한국과 중국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 반도체 웨이퍼 및 부품, 내연 엔진 부품을, 중국은 인쇄기 부품 등을 주로 판매한다. 한편 기계 및 운송장비 관련 부품이 서로 겹치는 분야인데 중국산 제품의 대일 수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규모 면에서 한국의 해당 제품은 3억달러에 불과해 총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림 37]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일본 내 원자로/보일러/기계부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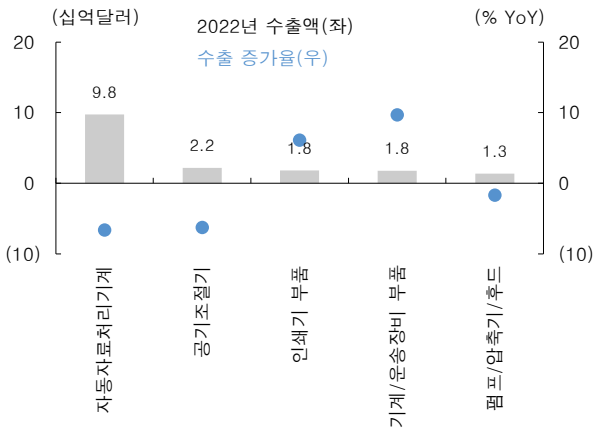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8]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39] 중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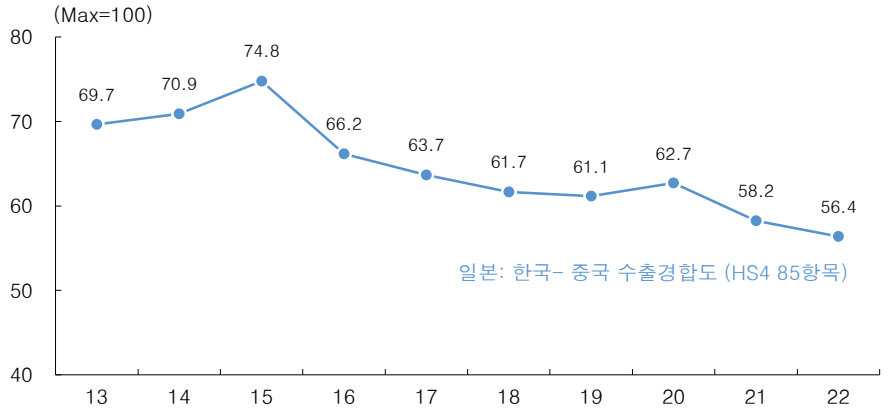
HS Code 85 항목의 한중 수출 경쟁은 약화

HS Code 85 항목인 전자기기 및 부품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한국과 중국의 경쟁 강도는 약해진 상태다. 2015년 이후로 양국의 수출경합도는 74.8에서 56.4로 하락하고 있다. 주요 품목에선 수출 경쟁이 있을 수 있지만 IT 관련 부품과 장비에선 한국과 중국의 비교우위가 서로 다르다는 걸 유추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수출에서 상위 품목은 서로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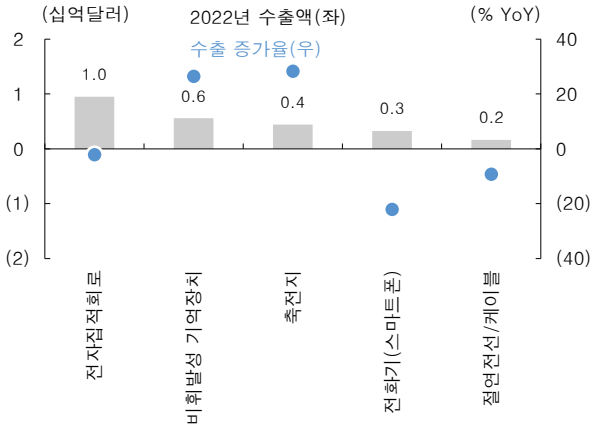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품목 중에서 증가율이 (+)인 것은 USB나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기억장치와 축전지가 있다. 한편 중국은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와 같은 반도체 디바이스, 절연전선 등을 수출한다. 한편 수출 증가율과 규모 면에선 한국의 전자집적회로가 중국의 동일 제품보다 작지만 수출 집중도와 관련해 한국이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40] 한국과 중국의 수출 경합도: 일본 내 전자기기 및 부품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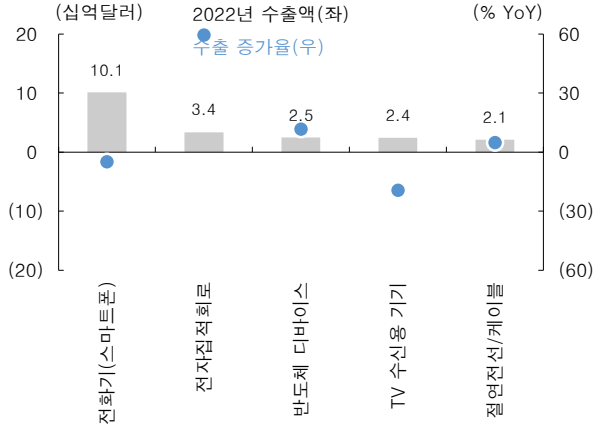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41] 한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그림 42] 중국의 대일 수출 상위 품목



주: HS 4단위 기준
자료: UN Comtrade, 한국투자증권

IV. 한국 수출주 투자전략

1. 전세계: 선별적 수출주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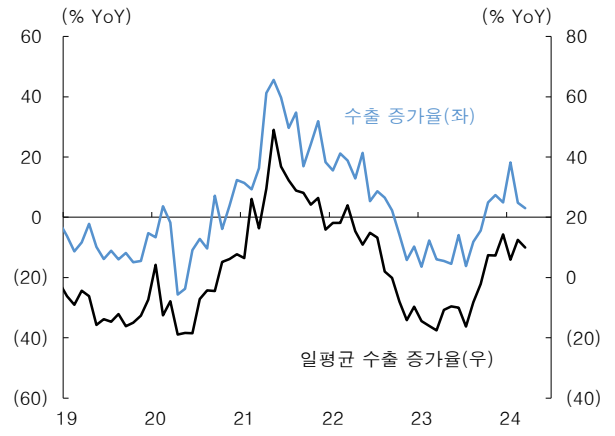
한국 주식시장 성과는 수출과 매우 관련 높음

한국 주식시장에는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다. 그러나 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대기업이다. 그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큰 매출을 일으킨다. 사업 구조가 수출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선 지수나 종목이나 수출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2024년 수출 전망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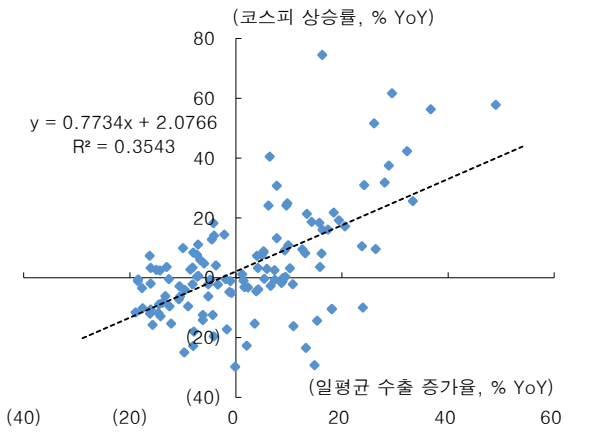
2024년 수출은 전술했던 전망에서 보듯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년 수출 부진의 기저효과가 사라져 증가율은 낮아질 수 있으나 성장세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동안 수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선 코스피도 성과를 내왔다. 돌발 변수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낙폭은 제한되는 흐름을 유지했다. 올해도 수출 개선을 바탕으로 지수 흐름이 급변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림 43] 한국 수출 증가율: 일평균 수치 포함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그림 44] 코스피 상승률과 일평균 수출 증가율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15대 품목 수출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

지난 3월까지 15대 품목 수출 증가율을 보면 선박을 비롯하여 반도체, 컴퓨터,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이 호조세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2차전지, 섬유, 기계 등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다. 향후 투자와 관련해선 언급한 품목들의 수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해질 것이다.

반도체, 선박 등 품목은 투자 비중 확대가 필요

이와 관련해 올해 수출 전망과 정부의 정책 지원, 그리고 해외 수출 경쟁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반도체와 선박은 2024년 수출 전망이 가장 양호하다. 현 정부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대외 경쟁과 관련해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중 견제로 한국기업의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AI 기술 발달로 한국산 반도체 수요가 높아진 점도 관련 종목의 상승세를 지지할 것이다. 한편 선박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촉발된 관심이 친환경 선박 수요로 연결될 것이다. 신규 수주 모멘텀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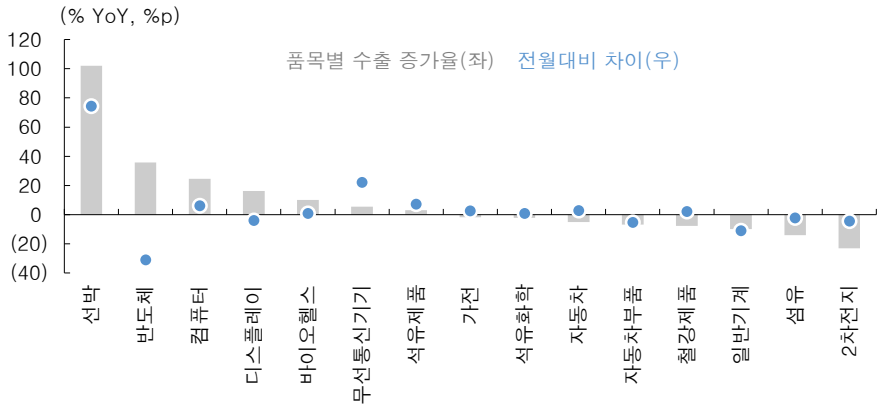
컴퓨터와 디스플레이는 비중 확대에 위험 상존

컴퓨터와 디스플레이의 경우, 수출 증가율은 양호하나 중국과의 경쟁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전세계 수출시장에서 중국 IT 제품과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한국도 관련 제품의 수출 증가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가격과 물량 측면에서 중국보다 열위에 있을 수 있다. 반도체와 선박처럼 투자 비중을 대대적으로 높이기엔 위험 부담이 존재한다.

자동차와 바이오헬스는 비중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

자동차도 중국과 전기차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기차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통한 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잠재적 성장 동력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사업계획에 따라 트레이딩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15대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바이오헬스는 한국의 새로운 수출 동력이란 점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글로벌 저출산 및 고령화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성장은 없겠지만 투자 시점과 관련된 고민은 미리 할 필요가 있다.

[그림 45] 15대 품목 수출 증가율과 전월대비 차이



자료: CEIC, 한국투자증권

<표 5> 한국 15대 품목의 수출 실적 및 증가율

(단위: 십억달러, %)

항목	Mar-23	Apr-23	May-23	Jun-23	Jul-23	Aug-23	Sep-23	Oct-23	Nov-23	Dec-23	Jan-24	Feb-24	Mar-24
수출	54.9	49.4	52.1	54.3	50.5	52.0	54.7	55.0	55.6	57.6	54.8	52.4	56.6
% YoY	(14.0)	(14.5)	(15.5)	(5.9)	(16.2)	(8.1)	(4.4)	4.9	7.3	5.0	18.2	4.9	3.1
수입	59.6	51.9	54.3	53.1	48.7	51.0	51.0	53.4	52.0	53.1	54.4	48.1	52.3
% YoY	(6.5)	(13.7)	(14.1)	(11.8)	(25.3)	(22.7)	(16.5)	(9.7)	(11.6)	(10.9)	(7.9)	(13.2)	(12.3)
석유제품	4.5	3.7	4.2	3.3	3.9	4.5	4.9	5.2	4.5	4.5	4.8	4.4	4.6
% YoY	(18.6)	(29.0)	(34.9)	(40.0)	(39.3)	(32.6)	(6.5)	16.1	(6.7)	(4.0)	13.3	(4.1)	3.1
철강제품	3.1	3.0	3.3	3.4	3.0	2.9	2.9	2.6	2.7	2.7	2.8	2.7	2.9
% YoY	(10.9)	(10.9)	(8.9)	3.1	(10.2)	(11.3)	7.3	(0.9)	(11.1)	(5.2)	2.0	(10.0)	(7.8)
석유화학	4.1	3.8	3.8	3.6	3.5	3.9	3.9	3.6	3.8	3.8	4.0	3.9	4.0
% YoY	(24.6)	(23.6)	(26.7)	(22.3)	(23.7)	(11.4)	(5.0)	(3.2)	6.1	4.0	4.4	(3.1)	(2.2)
2차전지	0.9	0.8	0.8	0.9	0.7	0.7	0.8	0.7	0.9	1.0	0.6	0.7	0.7
% YoY	0.6	(4.6)	(5.2)	17.0	(16.1)	(21.3)	(16.4)	(14.5)	23.1	(0.7)	(25.4)	(18.7)	(23.0)
일반기계	4.8	4.6	4.5	4.5	4.4	4.1	4.4	4.3	4.9	4.7	4.4	4.5	4.3
% YoY	(0.9)	7.2	1.5	8.1	2.8	7.6	9.8	10.3	13.8	2.1	14.2	1.1	(10.0)
선박	1.1	1.6	1.0	2.5	1.7	1.6	1.4	2.8	1.5	3.7	2.5	2.0	2.1
% YoY	(29.7)	59.0	(49.6)	103.2	(33.0)	32.0	14.6	101.8	31.6	46.6	76.1	27.7	102.1
섬유	1.0	0.9	0.9	1.0	0.9	0.8	0.9	0.8	1.0	0.9	0.9	0.8	0.9
% YoY	(12.1)	(14.9)	(15.2)	(3.0)	(15.7)	(10.9)	(8.6)	(9.0)	0.4	(10.0)	8.5	(12.0)	(14.2)
자동차	6.5	6.2	6.2	6.2	5.9	5.3	5.2	5.9	6.5	6.4	6.2	5.2	6.2
% YoY	63.6	40.3	49.2	58.3	15.0	28.7	9.4	19.7	21.5	17.8	24.7	(7.8)	(5.0)
자동차부품	2.1	1.9	1.9	2.0	2.0	1.9	1.9	1.8	1.9	1.8	1.9	2.0	1.9
% YoY	(5.6)	(1.7)	(0.8)	5.5	(0.5)	5.9	(3.6)	(3.8)	3.6	(10.8)	10.8	(1.6)	(6.9)
바이오헬스	1.2	1.0	1.1	1.3	1.0	0.9	1.1	1.0	1.2	1.3	1.2	1.2	1.3
% YoY	(35.2)	(18.4)	(27.3)	(6.2)	(17.6)	(25.2)	(15.0)	(1.6)	18.0	4.3	3.3	9.3	10.0
반도체	8.6	6.4	7.4	8.9	7.4	8.6	9.9	8.9	9.5	11.0	9.4	9.9	11.7
% YoY	(34.5)	(41.0)	(36.2)	(28.0)	(33.6)	(20.6)	(13.6)	(3.1)	12.9	21.7	56.2	66.7	35.8
무선통신기기	1.1	1.0	1.1	1.0	1.0	1.2	1.6	1.7	1.8	1.2	1.3	1.0	1.1
% YoY	(42.5)	(34.3)	(12.1)	(12.3)	(15.4)	(8.6)	(3.7)	(4.5)	8.3	(3.0)	(14.2)	(16.6)	5.5
가전	0.7	0.7	0.7	0.7	0.7	0.6	0.7	0.7	0.7	0.6	0.7	0.7	0.7
% YoY	(8.4)	(10.3)	(13.7)	3.3	2.3	11.7	7.2	5.6	14.0	3.0	14.1	(4.3)	(1.7)
컴퓨터	0.7	0.4	0.7	0.7	0.7	0.5	0.7	0.6	0.6	0.7	0.7	0.6	0.9
% YoY	(57.6)	(73.3)	(57.5)	(53.5)	(33.4)	(54.6)	(53.9)	(30.5)	(29.3)	(34.5)	37.1	18.4	24.5
디스플레이	1.2	1.2	1.4	1.4	1.7	1.9	1.8	2.1	1.9	1.5	1.3	1.3	1.4
% YoY	(41.6)	(29.3)	(7.4)	(11.1)	(4.6)	4.1	4.0	15.5	5.8	11.0	2.1	20.2	16.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투자증권

2. 중국: 일부 품목 기회 포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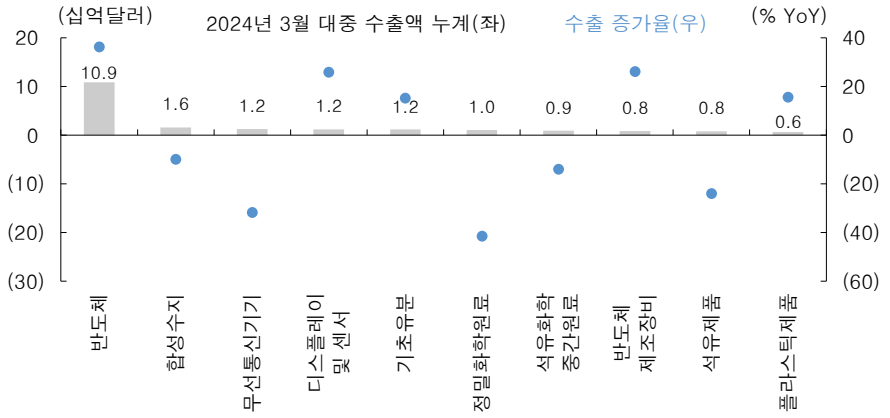
중국은 수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장

한국은 중국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 알다시피 중국은 오랫동안 제1수출대상국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최근 대중 수출이 저조하더라도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이면 투자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MTI 3단위 기준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은 반도체다. 올해 3월까지 누계로 10.9억달러를 기록 중이고 전년동기대비 36.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합성수지는 규모는 2위지만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반도체 수요는 증가 반면 합성수지는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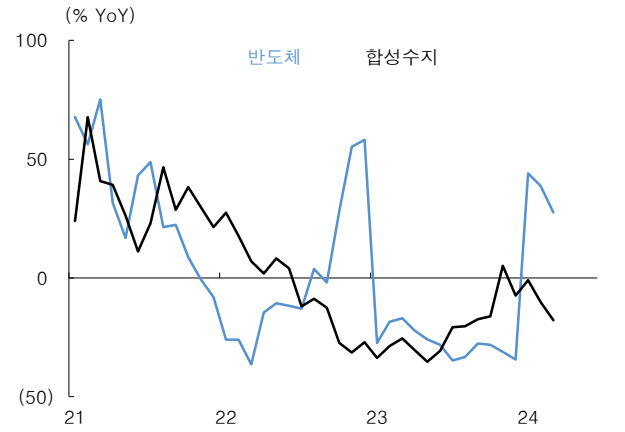
세부 항목 중 한국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반면 합성수지는 저밀도 및 고밀도 에틸렌 모두 수요가 약화된 상황이다. 산업 측면에서 수출 상위품의 증가율 변화는 해당 사업의 방향성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한다.

[그림 46] 한국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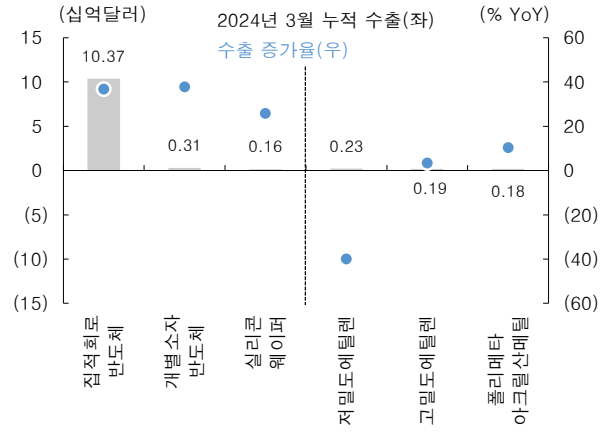
주: MTI 3기준.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3월 누계 이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47] 반도체와 합성수지: 수출 증가율 반락



주: MTI 3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48] 반도체와 합성수지: 세부항목 수출 변화



주: MTI 4기준(반도체), MTI 6기준(합성수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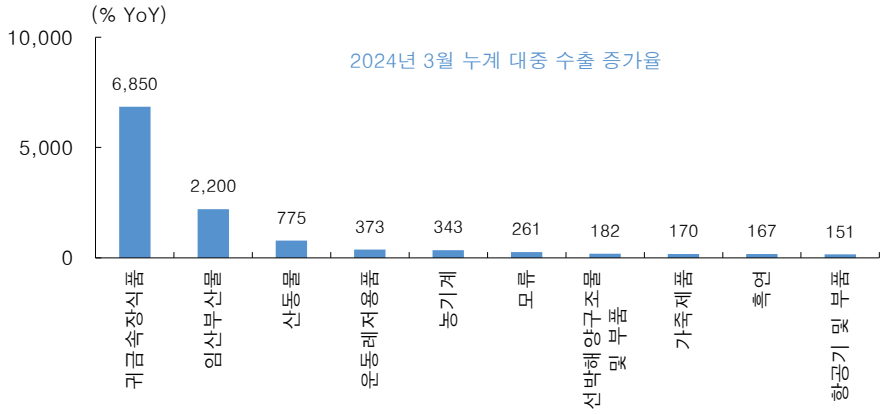
대중 수출이 급증한 품목은 일시적일 가능성 존재

수출 규모 외에 증가율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품목도 살펴야 한다. 중국에서 갑자기 인기가 올랐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선 귀금속장식품과 임산부산물(천연고무), 살아있는 동물 수요가 급증했다. 알려진 품목 외에 농기계, 모류(털제품), 가죽제품 수요도 늘어났다.

규모와 증가율 측면에서 선박, 항공 분야 관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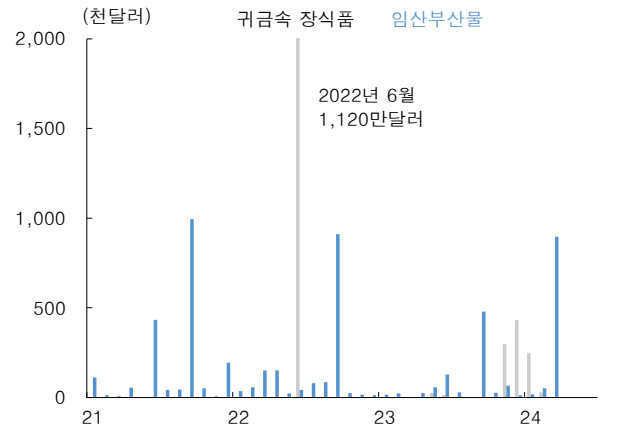
귀금속장식품은 최근 금과 은을 비롯한 귀금속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에 일시적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규모가 크면서 증가율도 높아진 항목은 선박용 엔진과 항공기 부품 등이 있다. 산업재 측면에서 해당 제품의 중국 수출이 더 늘어날 수 있을지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

[그림 49] 한국의 대중 수출 증가율 상위 10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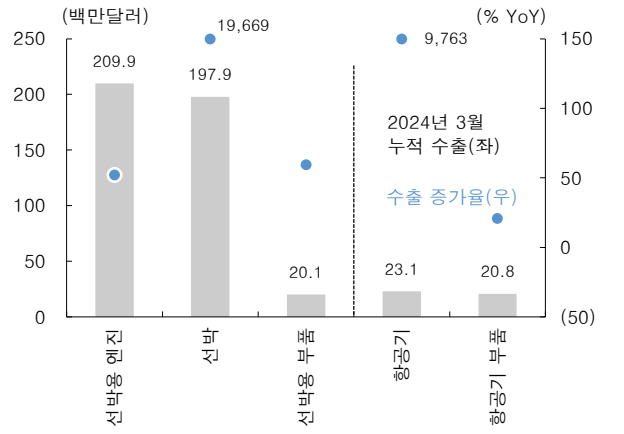
주: MTI 3기준.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3월 누계 이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50] 귀금속 장식품과 임산부산물: 간헐적 급증



주: MTI 3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그림 51] 선박과 항공기 실적: 세부항목 수출 변화



주: MTI 3기준. 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수치(3월 누계 이용)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투자증권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